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가톨릭 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가톨릭 성가 188> 천사의 양식	<가톨릭 성가 478>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 제 1독서 | 창세기 2,7-9; 3,1-7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 화답송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좌)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우)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좌)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우)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 제 2독서 | 로마서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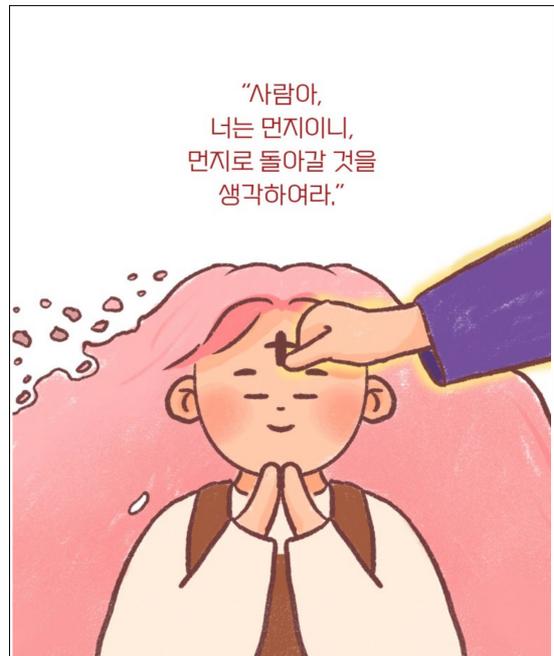
####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 마태오 4,1-11



## 오늘의 복음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 <하느님의 창조에 관하여> - Fr. 게르하르트 로핑크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다음, 에덴 동산에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어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는 이것으로 여자를 지으시지요.

제가 열 살 때는, 하느님이 마치 외과 의사처럼 아담의 갈빗대를 잘라 내시는 이야기가 우습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에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순진한 아이처럼 이해하지도, 그렇다고 근본주의자처럼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역사적 보도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적 해석은 하느님을 마치 외과 의사나 마취과 전문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본질에 부합하게 정확히 이해할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표상들은 정말 그대로 표상들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이야기의 힘과 진리가 밝히 드러납니다.

성경의 첫머리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이고, 다른 하나는 2장 4L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역사적 보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화론적

현상과 풀릴 수 없는 모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전에 잉글랜드 우스터의 성공회 주교의 아내가 찰스 다윈과 그가 새롭게 내놓은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맙소사, 하느님! 사실이 아니게 해 주세요. 만일 사실이라면, 적어도 알려지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표상적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화론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인간의 신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 <인간과 동물>

창세기 2장의 탁월한 표상 가운데 하나를 살펴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Adam)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흙으로 온갖 동물을 빚으십니다. 사람에게 '알맞으며 사람의 외로움을 없애 줄 협력자'이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이 동물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새를 사람에게 데려가십니다(창세 2,19 참조).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목적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생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 줍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그 생물들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듭니다. 개념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생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표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이 표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시다니요! 하느님께서서는 일종의 실험을 하시고, 성공하지 못하는 시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진화의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화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도중에는 여러 시도와 오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람이 온갖 동물들 가운데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이는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존재이며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유전체가 침팬지의 유전체와 98% 동일하다는 유전학자들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은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처음에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한 세상을 감싸고 그 위를 감돌고 있던 영을 하느님께서서는, 다시금 표상적 언어로 말하면,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고, 이 때문에도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하느님께서서는 동물들과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신 본래의도를 달성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동등한 존재 말입니다. 이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옮기면, 사람은 아직 공동체적 존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족속을 이루어 살고, 무리 지어 포효하고, 때로 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인격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 <남자와 여자>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

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Adam)에게 데려오십니다. 그러자 사람에게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의 말은 히브리어로는 단조롭게 이어지던 산문에서 갑자기 시적인 운율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

여성 해방주의의 입장은 이런 식의 표현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지배하려는 남자의 욕구와 최악의 가부장적 흔적을 여기서 읽어 냅니다. 먼저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말이야말로 남자의 교만한 우월적 감정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창세 1,1-24절)가 이미 전체적으로 창조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의 우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간결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그밖에,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곧바로 성 대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교의 한 주석이 본질에 더 가까운 설명을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또 남자의 발끝에서 여자를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자를 남자의 심장 곁에 있는 옆구리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게다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편과 결합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자기 밖으로 나가게 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준다.**

**모든 것의 원인인 하느님 자신도 사랑으로 충만한 선성의 흘러넘침으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섭리로 자신 밖으로 나간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1부 20문 2항에서)

## 공지 사항

### 1. 예비신자 교리 안내

- 다음주 주일 (3월 1일)부터 시작
- 시간 및 장소: 주일 오후 1시 15분, 성당 교육관

### 2. 사순시기 전례 변경사항

- 전례 기도문 2가지 생략: 대영광송 & 알렐루야 (기쁨과 환호의 표현을 사순시기에는 절제)
- 그레고리오 미사곡 사용 (성가 폴더 참고)

### 3.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주일 미사 전, 2시 30분에 시작
- 기도 순서:
  - 사순 제 2주일 (3월 1일) : 마르코
  - 사순 제 3주일 (3월 8일) : 마태오
  - 사순 제 4주일 (3월 15일): 요한
  - 사순 제 5주일 (3월 22일): 사목회

### 4. 고해성사 관련 사순시기 강의

- 일시: 3월 15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간식 나눔 후)
- 장소: 아란다 성당

### 5.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 성체조배 시간 중에 개별 고해성사가 가능합니다.

### 6. 사순시기 고해성사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고해성사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해주소서.”  
(애가 5,21)**

###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 봉헌금 & 교무금 | (2월 14일 ~ 2월 20일)

봉헌금	\$ 324.40			
교무금	\$ 530			
구민식	김태룡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원미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2-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